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웨딩 샴페인’

폴 로저 브뤼 리저브

Pol Roger Brut Reserve

지역	프랑스 > 샤파뉴		
포도품종	피노 누아 33% 피노 뫼니에 33% 샤르도네 33%		
알코올	12.5%	용량	750ml
등급	AOC	시음 적정 온도	6-10℃
테이스팅 노트	샤파뉴 전역의 대표 포도품종을 선별하여 피노 누아, 피노 뫼니에, 샤르도네를 각각 같은 비율로 블렌딩하여 완성된 연한 골드 컬러의 샴페인이다. 버섯과 흙향 등의 풍부한 부케가 코에 닿으며, 빈티지 샴페인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충분한 개성을 발휘하며 단단한 바디와 호두향, 그리고 섬세한 기포에 뒤따르는 매끈한 질감이 특징이다.		



제품설명



‘화이트호일’ (White Foil)이란 애칭으로 유명한 폴 로저 브뤼 리저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NV 샴페인 중 하나이다. 2011년 4월 영국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공식 웨딩 샴페인으로도 지정되었다. 종종 샴페인 하우스의 명성은 논빈티지(NV) 샴페인의 품질로 결정된다고 말하는데 폴 로저는 스타일과 품질에서 매년 일관성을 유지하며 우수한 샴페인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상내역



NV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NV빈티지 와인 애드보케이트 Wine Advocate 92점
NV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90점

와이너리



1849년 설립된 폴 로저는 대기업의 공격적인 기업 인수 속에서도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생산과정 중 병들리기 (흐미야주, Remuage)를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직접 사람의 힘으로 흐미야주 과정을 진행하는) 유일한 샤파뉴 하우스이다. ‘젠틀맨의 샤파뉴’이라는 호칭처럼, 유럽의 상류층과 로얄 패밀리들의 사랑을 받아온 폴 로저는 1,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 사랑했던 샤파뉴로 더욱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 2004년 1월부터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식 샴페인 공급처로 지정되어 폴 로저의 모든 샴페인에서 “왕실인증서(Royal Warrant)”의 공식 마크를 볼 수 있다. 특히 2011년 4월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웨딩 샴페인으로 영국 왕실에서 폴 로저 브뤼 리저브를 특별 주문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세기의 결혼식에 어울리는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내 입맛은 아주 단순하다. 나는 최고에 쉽게 만족한다!” -윈스턴 처칠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